

# 우리의 마음 많다

청소년환경기자단 해양안전교육 (2020. 11. 14.)



## 목 차

02 특별기고

04 회원기고(독후감)

05 기고

06 활동보고

08 회계보고

10 환경영화/서적

11 환경상식

12 청기백기-청소년기자단

14 동호회 활동

15 정기총회 안내

16 신입회원 안내 / 광고

# 감염병 시대, 도시의 미래

정리 / 도시환경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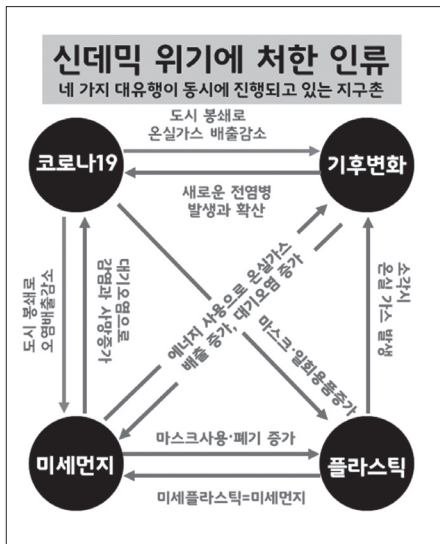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시대를 맞아 기후위기와 환경오염, 도시문제, 나아가 경제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때마침 지난 2020년 10월 27일 서울연구원 개원 28주년 기념 세미나 <감염병 시대, 도시의 운명과 서울의 미래>에서 한영준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발제한 내용 ‘감염병 시대, 지속 가능한 서울을 위한 도시 인프라 혁신 방안’은 도시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목표의 도시미래상은 어떠해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내용은 2020년 12월 3일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한 제11회 아시아미래포럼 <세션6. 펜데믹 시대: 도시의 미래>에서 ‘감염병 시대, 서울의 도시인프라 혁신방안’이란 제목으로도 발표되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이 발제문에서 등장한 몇 가지 개념을 통해 감염병 시대의 도시의 나아갈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 신데믹 위기 - 대도시에 작은 도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2014년 지구 평균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전염병이 4.7%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바 있고, 인류는 신데믹 위기에 처해있다.

신데믹이란 2개 이상의 유행병이 동시 혹은 연이어 집단으로 나타나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사태를 악화하는 것을 말한다. 1990년대 중반 미국 코네티컷 대학의 의학 인류학자 메릴 싱어가 처음 사용한 용어다. ‘신(syn-)’은 ‘함께’ 혹은 ‘동시에’ 뜻을 가진 접두사이고, ‘데믹(-demic)’은 유행병(epidemic)을 의미한다.

이러한 감염병의 시대 도시의 과제는, 비대면 일상화, 대중교통 기피, 재택근무/홈스쿨링에 따른 뉴노멀 대응과 함께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원활용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염병 관리가 어려운 대도시(단핵도시)가 아니라 작은도시



(다핵도시)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 자족형 근린생활권 조성 - 직주근접, 선형공원, 보행·자전거·PM

감염병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직주근접과 보행·자전거·PM(Personal Mobility,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용 이동수단) 이동이 중심이 된 자족형 도시의 발전이 필요하다. 직주근접은 직장과의 주거시설이 근접한 것을 의미한다. 직주근접의 주거시설은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면서 직장인들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도시계획의 중요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엔 직주근접을 넘어서 직장과의 주거시설(공간)의 동일화로서 직주일치가 등장했다.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직장과의 주거 공간의 일치 즉 '직주일치'가 기존 가치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의 빅데이터 자료를 보면, 집



인테리어 관련 지출이 많아졌다고 한다. 상권으로 보면 관광산업 기반으로 한 서울의 인사동이나 명동 같은 곳의 소비가 많이 빠진 반면 집 주변 근거리 소비는 오히려 성장했으며 회식 없이 빨리 퇴근해서 가족과 유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요한 녹지공간도 일부 지역에 대규모 녹지를 조성하거나 광장에 조성하는 식으로 공급하지 않고 이동과 휴식을 동시에 하도록 선형공원으로 만들거나, 공공 공간에 정원을 조성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선형공원(線形公園)은 하이킹, 자전거, 스노모빌, 여가 운전 따위처럼 다양한 활동형 레크리에이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선모양으로 길게 만든 공원을 말한다. 우리 목표의 폐선부지공원이야말로 매우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 디지털 복지와 탄소중립도시

늘어가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Wifi-IoT(사물 인터넷) 등 디지털 인프라의 촘촘한 구축을 통해 노약자, 어린이, 소상공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디지털 복지를 제공하고,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공간인 도시를 자원순환과 탄소중립의 도시로, 즉 성장과 소비의 도시에서 풍요와 생태의 도시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 자족형 도시 목표 만들기

한영준 부연구위원의 발제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감염병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대규모 도시 대신 직주근접과 보행 및 자전거 이동이 중심이 된 '작은 도시'의 발전이 필요하고, 서울 역시 전체를 인구 15만~20만명이 모인 작은 자족도시 60개가 모인 구조로 재편해 하나의 근처에서 웬만한 일상이 해결되는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어찌보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목표는 오히려 인구의 규모면에서나 면적에서나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자족형 '작은 도시'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형공원을 따라 보행과 자전거로 이동이 편리하고, 시민 누구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서 마을주차장,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썬지공원, 어르신 쉼터 같은 주민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여기에 일회용품 감축, 재활용 기반구축, 폐기물처리시설 고도화를 이룬 자원순환도시 자족형 쾌적한 도시 목표를 소망한다.



# 에코리딩(독서 동호회) 두 번째 이야기, 지구 지킴이 실천팁

글 / 류은경 (회원)

지구의 기후 변화를 걱정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5인의 목포환경운동연합 회원이 '에코리딩'이라는 소모임을 만들었다. 지구를 구하는 독수리 5형제 같은 어벤저스급은 아니지만, 환경 관련 도서를 읽고 토론하며, 그 내용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자 노력하는 모임이다.

에코리딩의 12월 선정 도서는 <새롭고 적극적인 지구를 살리는 방법 50, THE NEW 50 SIMPLE THINGS YOU CAN DO TO SAVE THE EARTH>이었다. 이 책은 존 자브나가 그의 두 자녀들과 함께 작업한 환경 도서로, 30년 전에 그가 출간한 <지구를 살리는 50가지 방법>의 한계를 느끼고 절판시킨 후 제목에 'NEW'를 첨가해서 2010년에 다시 출간된 도서이다. 출간된 지 10여 년이 지나긴 했지만, 2021년의 지구는 2010년의 지구보다 더 위태로운 상황이므로 이 책에서 제시한 방법은 지구를 살리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하는 것들이다.

각기 다른 분야의 50가지 실천내용을 기술하면서 저자가 일관되게 언급하는 내용을 나의 주장과 함께 정리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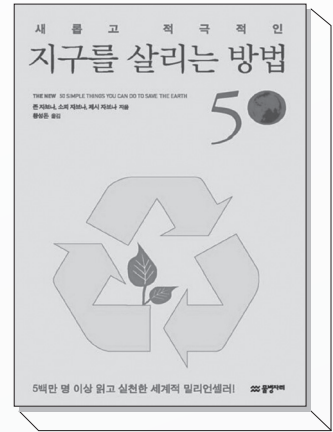
**첫째, 관심 있는 실천내용의 관련 단체에 가입하라.** 저자는 각 실천내용의 마지막에 관련 단체들과 홈페이지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에 가입을 권하고 있다. 모두가 자신의 생업을 뒤로 하고 현장에서 뛰는 활동가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활동을 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할 수 있는 활동에 동참하고, 그 단체를 후원하는 것이 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내 수입의 일정 부분은 단체 후원비로 따로 떼어놓는 것은 어떨까.

**둘째, 관련 법규 제정을 위해 노력하라.** 지구를 위해 무엇인가 바꾸려고 해도 관련 법규가 없거나, 기존의 법이 가로막는 경우가 있다. 우리의 생활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권자로서 지구를 위해 표를 던져야 한다. 환경문제에 민감한 입후보자를 선택하고, 반환경적 공약을 내세운 입후보자는 당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관련 법규를 제정하도록 의견을 내고, 정부에도 꾸준히 요청해야 한다.

**셋째, 아이들을 가르쳐라.** 비단,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동, 식물, 에너지, 화학제품까지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아이들을 교육해보면 흡수도 빠르고, 실천력도 성인들보다 훨씬 높다. 21세기의 안전한 지구를 살아가기 위해 아이들을 훈련하고 교육해야 함은 당연하다.

**넷째, 주위에 알려라.** 이 책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지구를 위해 어떤 한 가지를 실천하고 싶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와 단체를 모두 친절히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꿀 정보들은 혼자만 알고 있다면 너무 아깝지 않겠는가. 주위에 정보를 공유하면 분명 함께 할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저자가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책을 저술한 것처럼, 내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이유도 '다음 세대'에 대한 부채 의식 때문이다. 내 아이는 평생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할 수도 있고, 살인적인 폭염을 해마다 경험해야 하며, 각종 환경호르몬으로 인해 질병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등,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혹독한 지구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 코로나19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제로 웨이스트가 점점 관심을 받고 떠오르고 있다. 여기서 더 한 발짝 나가고 싶다면 이 책 <새롭고 적극적인 지구를 살리는 방법 50>의 일독을 권하며 이 책 속에서 팁들을 얻어 보기 바란다.



# 제로웨이스트 실천 내 일상을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글 / 나보림 (지구별서점 지기)

안녕하세요. 지구별서점 지기 나보림입니다. 지구별서점은 목포 시내 원도심에 위치해 목포역과 유달산 가까이에 서 나란히 어깨동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점은 독립출판물과 단행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 여성, 다양성에 더 초점을 둔 서적을 입고 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고 아담하지만, 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이 꾸준히 관심 가지고 있는 환경오염, 제로웨이스트 실천 관련 책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환경적이고 느린 삶에 관심이 생겨 조금씩 천천히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제가 꾸려나가고 있는 이 작은 서점에서 환경관련 책을 손님들께 권해드리고,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도로 작년부터 목포에서 <두번째 생일>이라는 봉제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아름님과 현수막을 활용한 북 커버를 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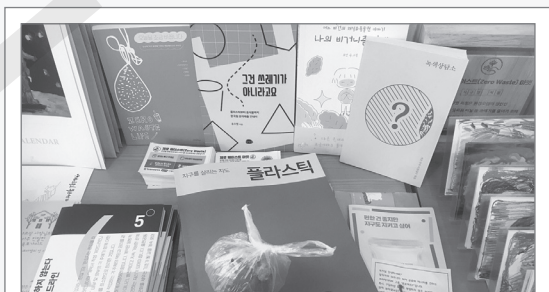
<가치나눔 프로젝트>로 손님들께 알리고 판매하여 수익금 일부를 우리나라 최초 생태환경문화 잡지사인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 후원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시도를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든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삶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생활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고, 편한 일상생활에 길들여져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갑자기 우리의 생활방식을 바꾸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모르는 것을 배우려는 태도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식이 바뀌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실천하리라 믿습니다.

내 삶을 점검해보고 일상을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내가 먹고, 입고, 소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 환경책 코너

많은 분들이 제로웨이스트 삶을 실천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환경책 코너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010-5499-3511) 연락주시면, 책을 추천해드립니다.



## 작년부터 시작한 <가치나눔 프로젝트>

폐현수막, 폐실을 이용해 북커버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업사이클을 알리며, 판매 수익금은 환경단체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에 올리고 싶은 글이 있으면 사무국(061-243-3169)으로 연락주시시오

# 11월

- 03일(화) 광주 · 전남 국처장단회의 / 서해초등학교 석면모니터단 활동
- 04일(수) 전국 국처장단 온라인 회의 / 정보공개 청구(갯바위 인근 문화재 영향 평가)
- 05일(목) 압해중 환경교육 / 제로웨이스트 현판 전달(퀘스트시티, OZ) / 신안군지역경제과 면담
- 06일(금) 총회준비위원회 1차 모임/ 제로웨이스트 설문지 통계자료 입력
- 09일(월) 제로웨이스트 현판 전달(지구별 서점) / 아름다운 하루 기획회의(OZ)
- 10일(화) 자원순환연대 최종보고서 완료, 발송
- 11일(수) 지방빼고 건강더하기 동호회 모임 / 전남인권협의회(전남노동인권센터)
- 12일(목) 소통과연대 대표자회의 / NCC 창립총회 참석(목포중앙교회)
- 13일(금) 총회준비위원회 2차 모임 /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북콘서트 참석
- 14일(토) 시민회원과 함께하는 생태기행(부주산 23명 참여) / 청기백기(청소년환경기자단) 해양안전교육
- 16일(월) 소식지발송(442통) / 해안동발전추진위 면담 / 환경공부 모임(삼향천)
- 17일(화) 615 실천 목포지부 집행위원회(OZ) / 목포내항 폐그물 등 쓰레기 방치 현장 점검
- 18일(수) 유달산 보행자편의도로 진행상황 확인(YMCA)
- 20일(금) 총회준비위원회 3차 모임
- 23일(월) 예코리딩 동호회 모임 / 목포시의회 모니터단 회의
- 24일(화) 목포시의회 모니터단 교육(YWCA) / 회원확대특위 모임  
사무총장 후보 지역 순회 온라인 워크숍(광주환경운동연합)
- 25일(수) 압해중 환경교육 / 목포시의회 모니터단 활동(도시건설위원회) / 영산강위원회 회의(나주시청)
- 26일(목) 김훈 규탄 1인시위(광주고등법원)
- 27일(금) 총회준비위원회 5차 모임 / 폐기물 불법 매립 민원 관련 현장방문(영암군)
- 28일(토) 청기백기(청소년환경기자단) 민주교육(OZ 9명 참여 / 김훈 전의원 관련 목포시의장 면담
- 30일(월) 해안동발전추진위 면담 / 김훈 전의원 관련 기자회견(목포시의회)

· 시민회원과 함께하는 생태탐사(부흥산)



· 제로웨이스트 현판 전달(퀘스트시티)



· 목포내항 폐그물 등 쓰레기 방치 현장 점검



· 압해중학교 환경교육

# 12

## 월

- 01일(화) 제로웨이스트 현판 전달(신형당) / 뜨개마루, 지방배고 건강더하기 동호회 모임
- 02일(수) 부귀영화 동호회 모임 / 자원순환연대 최종보고서 수정 발송  
정보공개 청구(영암 삼호지구 매립 관련)
- 03일(목) 김훈 전의원 관련 기자회견(목포시의회) / 제4차 항만기본계획 관련 선전 홍보물 수정
- 04일(금) 아름다운 하루 물품 모집 마감
- 07일(월) 도시문화재과 (서산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현상항 공유)
- 08일(화)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목포시의료원과 업무 협약식
- 09일(수) 김훈 전의원 관련 피켓시위(목포시의회) / 나비연대 관계자 사무국 방문(소각장 관련)
- 10일(목) 아름다운 하루 행사진행, 업무협약(아름다운가게 원도심점) / 북향회센터 배수펌프장 현장 점검
- 09일(금) 시민회원과 함께하는 생태기행(유달산 19명 참여)
- 14일(월) 환경공부모임 (소각장 현상항과 시입장 확인)
- 15일(화)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면담(미세먼지 측정 지점 확대 등 논의)
- 16일(수) 출발서해안시대 인터뷰(제4차 항만기본계획) / 뜨개모임
- 17일(목) 제229차 집행위원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총회준비위원회 6차 모임
- 18일(금) 민주시민교육 자문단 화상회의 / 회원서신 발송(회원확대 촉구)
- 21일(월)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사업 지원서 제출 / 회원과 함께 삼부바 만들기(헬렌공방)
- 22일(화) 뜨개모임 / 삼학도 호텔건립 계획 정보공개 청구
- 23일(수) 석면 모니터단 활동(목포인성학교)
- 24일(목) 총회준비위원회 7차 모임
- 28일(월) 서산온금재정비 촉진지구 아파트 건립 계획 문제 전문가 면담
- 29일(화) 뜨개모임 / 쓰레기 소각장 관련 입장문 회원 웹 발송
- 30일(수) 제4차 항만기본계획 고시 / 옥암중학교 환경교육(~31일)

· 제4차 항만기본계획 관련 선전 홍보물

· 아름다운 하루 행사



· 시민회원과 함께하는 생태탐사(유달산)

· 목포시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11월

(주)수다방게스트하우스/(주)현성건설/(유)인동기업/(주)달빛언덕/게스트하우스 달꾸메/목포대성신탁/우진건설/(주)보해양조/더오래들/코롬방제과점/해바라기치과의원/감의갑(장미선)/강덕수/강동호/강명근/강석원/강성희/강승우/강영구/강제석/강중령/강창원/강철수/강혜정/고경석/고광현/고성철/고윤혁/공남은/박신영/곽용열/박재구/박진용/구봉선/국순천/권기철/권수환/기재명/김가영/김경미/김경민/김경숙/김경완/김경태/김공경/김관오/김관일/김광미/김광수/김광호/김귀영/김근순/김기범/김기봉/김기철/김나영/김대중/김도관/김도형/김동욱/김동호/김명숙/김명중/김명진/김명희/김명희/김무영/김미영/김미정/김미희/김민국/김민규/김민주/김민지/김병목/김보현/김상순/김상훈/김성남/김성길/김성륜/김성민/김성진/김성희/김세나/김수린/김숙자/김순미/김순영/김시연/김심욱/김애숙/김애자/김양준/김영/김영남/김영민/김영범/김영식/김영식/김영운/김영제/김영준/김영현/김영호/김옥/김옥미/김완석/김용구/김용진/김웅기/김원미/김유경/김윤임/김은미/김은숙/김음/김인순/김일용/김장원/김재기/김재영/김정민/김정훈/김정희/김중국/김지수/김지숙/김진형/김진희/김창삼/김창훈/김철주/김탁/김태근/김태수/김태웅/김판석/김학주/김해성/김현연/김현근/김현숙/김현숙/김현정/김형기/김형애/김혜정/김홍안/김화영/김환석/김희주/나광봉/나양명/나연운/나천규/나현대/남영숙/남주연/노애란/노천우/류금순/류미현/류수영/류은경/류재청/마홍식/모원중/무관/문경진/문보현/문성중/문원규/문정임/문호/문효선/민경관/박갑수/박경봉/박경서/박경양/박권철/박금단/박기남/박기성/박기철/박기훈/박대성/박동구/박동환/박미덕/박미정/박민규/박배선/박병구/박상현/박성영/박성욱/박성원/박성준/박성현/박순미/박영윤/박영철/박용/박용일/박용호/박원배/박원석/박유진/박윤길/박은숙/박은정/박은화/박은희/박재신/박정록/박중순/박중순/박중위/박지현/박창수/박창우/박창현/박천용/박철수/박최근/박필수/박현/박현/박현경/박현숙/박혜숙/박화진/박희성/방창식/배동희/백동진/백성숙/백영규/백재복/변재영/서경수/서연순/서영선/서영옥/서정/서정민/서한배/서효택/설지연/성보석/성상순/소혜인/손문선/손민원/손버리/손봉현/손철주/손현/송광훈/송두호/송영미/송영준/송정미/신경우/신경희/신동명/신용주/신원호/신현령/안명희/안수경/안오삼/안진배/안혜영/양덕수/양수민/양승희/양영상/양정우/양주동/양진국/양창숙/양현주/양환/양효석/염미순/염승주/오경섭/오미선/오민임/오수진/오숙향/오승원/오영철/오광근/오재록/오하늘/오현주/옥선필/우성주/위준철/유헌호/유기성/유대훈/유영근/유영순/유영업/유영창/유원석/유은숙/유주훈/유지원/유혜정/유효진/윤기현/윤남/윤동준/윤선미/윤선영/윤성광/윤성수/윤원희/윤인수/윤종인/윤종일/이경애/이경석/이경숙/이경아/이경태/이광봉/이기식/이동훈/이명숙/이명희/이미순/이보섭/이상엽/이상우/이성호/이성환/이승환/이수/이승용/이승우/이승익/이승한/이승환/이승희/이영주/이용기/이용자/이용철/이우주/이원기/이일호/이재경/이재우/이재이/이재현/이정식/이중환/이중훈/이주연/이준희/이지우/이지현/이지아/이진형/이창일/이창현/이학숙/이현숙/이현승/이현정/이현진/이형광/이형완/이형주/이혜령/이혜용/임경숙/임성기/임성진/임은아/임은희/임재혁/임정원/임지현/임지우/임진욱/임창욱/임태삼/임혁/장관호/장근천/장동훈(박민아)/장복천/장영미/장유선/장이주/장이진/장재연/장지은/장진실/장향금/장희용/전경남/전경란/전남배/전대열/전상보/전성철/전양수/전용원/전용원/전준수/전형숙/정고윤/정기심/정대일/정동욱/정병이/정성배/정성우/정수민/정승용/정순용/정연수/정영우/정영희/정영주/정영호/정윤나/정윤정/정인숙/정일/정재근/정중삼/정지범/정창권/정철희/정현찬/정형석/조경민/조광운/조상현/조애련/조애순/조영규/조영인/조옥현/조원기/조은일/조철제/조혜향/조호빈/주성은/주인철/진선우/진선철/진성필/진지연/차용문/차용훈/채희준/최경만/최경수/최국진/최규광/최근욱/최명숙/최비호/최석원/최선국/최성규/최승주/최승재/최승은/최승희/최영란/최영섭/최영식/최예화/최완수/최은규/최은기/최은녕/최은주/최이문/최정관/최정삼/최정훈/최진상/최철수/최태욱/최현영/최화봉/최환석/추현성/하영성/한양규/한은식/허상진/허진홍/현인수/홍갑석/홍광복/홍선기/홍성혁/홍세영/홍정우/홍택욱/황민수/황선주/황형수/황해미

목포환경운동연합 11월 결산보고

수 입		금 액
항 목		
회 비	개인회비	6,501,000
	단체회비	275,000
소 계		6,776,000
사업수입		150,000
후 원 금		410,000
기타수익		4,320,000
이자수익		0

[개인회비]

- 서효택 연회비 12만원
- 11월 CMS 3차 12월로 이월

[후원금]

- 후원회원 15만원
- 디자인 그리다(전용원) 후원 25만원
- 뜨개마루 1만원

[기타수익]

- 일자리안정자금 32만원
-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400만원(8월, 9월)

[사업수익]

- 생태기행 참가비 10만원
- 소식지 광고비 유비एको(이승용) 5만원

당월수입금	11,656,000
전월이월금	12,262,988
합 계	23,918,988

지 출		금 액
항 목		
회 비	교육사업	325,100
	조사연구	0
	홍 보 비	0
	행 사 비	98,000
	연대사업	344,340
	역량강화	0
소 계		767,440
회 의 비	총 회 비	0
	위원회비	100,000
소 계		100,000
인 건 비	금 여	5,533,210
	복리후생비	1,158,500
	퇴직적립금	485,230
소 계		7,176,940
업무추진비	출 장 비	77,000
	활 동 비	120,000
소 계		197,000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0
	수 선 비	0
	도시인쇄비	518,000
	통신광열비	522,040
	소모품비	78,580
소 계		1,118,620
기타	환 경 기 금	100,000
	제세공과금	15,150
	보 험 료	100,000
	지급 수수료	128,480
소 계		343,630
당월지출금		9,703,630
동장 잔액		14,215,358
합 계		23,918,988



# 12월

(유)인동기업/(주)달빛언덕/(주)보해양조/(주)수다방게스트하우스/(주)현성건설/게스트하우스 달꾸메/더오래들/목포대성신협/우진건설/코롬방제과점/특허사무소 다입/해바라기치과의원/김의갑(정미선)/강덕수/강동호/강명교/강석원/강성희/강승우/강영규/강제석/강종량/강창원/강철수/강혜정/고경석/고광업/고광진/고광현/고성철/고윤혁/공남은/곽신영/곽용용/곽재구/곽진용/구봉선/국순천/권기별/권수한/기재명/김가영/김경미/김경민/김경숙/김경원/김경태/김공경/김관오/김관림/김광미/김광수/김광호/김귀영/김근대/김근순/김기범/김기봉/김기철/김나영/김대중/김도관/김도형/김동욱/김동호/김명숙/김명중/김명진/김명화/김명희/김무영/김미영/김미정/김미화/김민국/김민규/김민주/김민지/김병욱/김보현/김상순/김상훈/김선남/김성길/김성륜/김성진/김성희/김세나/김수린/김숙자/김순미/김순영/김시연/김심옥/김애숙/김애자/김영준/김영/김영남/김영민/김영범/김영식/김영시/김영운/김영제/김영준/김영현/김옥/김옥미/김완석/김용구/김용진/김용기/김원익/김우경/김윤임/김은미/김음/김인순/김일홍/김정원/김재기/김재영/김정민/김정훈/김정희/김종국/김지수/김지숙/김진형/김진희/김창식/김창훈/김철주/김택/김태대/김태수/김태웅/김판삼/김학주/김해성/김행영/김현근/김현숙/김현숙/김현정/김형기/김형애/김혜정/김홍안/김화영/김환석/김희주/나광봉/나영명/나연운/나천규/나현대/남명숙/남주연/노천우/류금순/류미현/류수영/류은경/류재철/마흥식/모원중/무관/문경진/문보현/문성중/문원규/문정임/문호/문효산/민경관/박갑수/박경봉/박경서/박경양/박권철/박금단/박기남/박기성/박기철/박기훈/박대성/박동구/박동환/박미정/박민규/박배선/박병규/박상현/박성수/박성영/박성욱/박성원/박성준/박성현/박순미/박영윤/박영철/박용/박용일/박용호/박원배/박유정/박유진/박윤길/박은숙/박은정/박은화/박은희/박재신/박정록/박중순/박중수/박중위/박지현/박창수/박창우/박창현/박치용/박철수/박최규/박현/박현경/박현숙/박혜숙/박화진/박희성/방창식/배동희/백동진/백영규/백재용/변재영/서경수/서연순/서영선/서영숙/서정/서정만/서한배/설지연/성보석/성상훈/소혜인/손문선/손민원/손버리/손봉현/손철주/손현/송광훈/송두호/송영미/송영중/송정미/신경우/신경희/신동영/신용주/신원호/신현령/안명희/안수경/안요삼/안정배/안혜영/양덕수/양수민/양승희/양영삼/양정호/양주동/양진국/양철수/양현철/양환/양효식/염미순/염승주/오경식/오문환/오미선/오민임/오진우/오수향/오승원/오영출/오왕근/오재록/오하늘/오현주/우성주/위준철/유헌호/유기성/유대홍/유영근/유영순/유영업/유영철/유원석/유은숙/유주훈/유지현/유혜정/유호진/윤기현/윤남/윤동준/윤선미/윤선영/윤성광/윤성수/윤원희/윤인수/윤종일/윤종일/이경매/이경석/이경아/이경택/이광봉/이기식/이동훈/이명숙/이명희/이미순/이봉선/이상엽/이성호/이성환/이승환/이승우/이승익/이승한/이승환/이승희/이영주/이용자/이용철/이우주/이원기/이일호/이재경/이재우/이재이/이재현/이정식/이중훈/이주영/이준호/이지우/이지현/이진아/이진영/이창현/이현숙/이현승/이현승/이현정/이현진/이형광/이형완/이형주/이혜령/이혜용/임경숙/임성기/임성진/임은아/임은희/임재형/임정원/임지현/임진욱/임창욱/임태성/임택/장광호/장근천/장동춘(박민아)/장복천/장영미/장유선/장지우/장지진/장재연/장지은/장진실/장형금/장희용/전경민/전경란/전남실/전대열/전상보/전성철/전영삼/전원일/전준수/전현숙/전형숙/정고은/정대일/정동욱/정병이/정성배/정성우/정수민/정순용/정순용/정연수/정연우/정연희/정영주/정영호/정윤나/정윤정/정일/정재근/정종하/정중삼/정지범/정찬권/정철희/정현찬/정형석/정효준/조경민/조광운/조미정/조상현/조애린/조애순/조영규/조영민/조옥현/조원기/조은일/조철제/조혜향/조후현/주성은/주인철/진선우/진선화/진성필/진지연/차용만/차용훈/채희준/최경만/최경수/최국진/최규광/최근욱/최명숙/최석원/최선국/최성국/최승주/최순국/최승은/최승희/최영만/최영섭/최영숙/최영식/최예화/최완수/최용선/최은규/최은기/최은영/최은주/최이민/최정관/최정삼/최정훈/최진상/최철수/최태대/최현영/최호봉/최화영/최환석/추연성/하여영/한양규/한은섭/허상진/허진홍/현인수/홍광복/홍선기/홍성희/홍세영/홍정우/홍택용/황인수/황선주/황형수/황혜미/

## 목포환경운동연합 12월 결산보고

수 입		금 액
항 목		
회 비	개인회비	8,781,000
	단체회비	645,000
소 계		9,426,000
사업수입		590,000
후원금		160,000
기타수익		4,796,000
이자수익		6,568

### [후원금]

- 원회원 15만원    • 뜨개마루 1만원

### [기타수익]

- 일자리안정자금 32만원
-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400만원(10월, 11월분)
- 국민연금공단 유급휴가 지원비 47만 6천원

### [사업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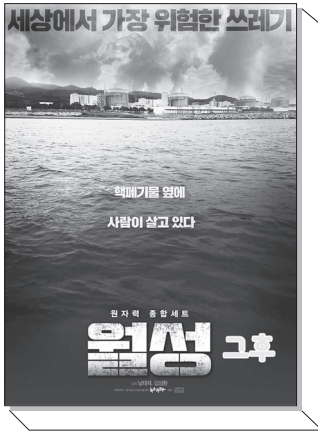
- 소식지 연간 광고비(손현) 30만원    • 생태기행 참가비 8만원
- 해안동발전추진위 후원 21만원

### [사업비(홍보비 내역)]

- 소창 손수건, 삼배 수세미 구입 (100개) 40만원
- 신문삽지 24만원    • 대봉투 제작 12만원
- 전단지 제작 55만원 (제4차 항만기본계획 관련)
- 마우스패드 (700장) 92만 4천원 (회원 배포용)

당월수입금	14,978,568
전월이월금	14,215,358
합 계	29,193,926

지 출		금 액
항 목		
교육사업	교육사업	340,000
	조사연구	0
	홍보비	2,234,000
	행사비	67,000
	연대사업	660,820
역량강화	0	
소 계		3,301,820
회의비	총회비	0
	위원회비	374,000
소 계		374,000
인건비	급여	5,533,210
	복리후생비	1,096,230
	퇴직적립금	485,230
소 계		7,114,670
업무추진비	출장비	0
	활동비	60,000
소 계		60,000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0
	수선비	0
	도서인쇄비	18,000
	통신광열비	162,490
	소모품비	132,000
소 계		312,490
기타	환경기금	100,000
	제세공과금	6,470
	보험료	100,000
	지급수수료	247,440
소 계		453,910
당월지출금	11,616,890	
통장 잔액	17,577,036	
합 계	29,193,926	



## 월성 그후 (26분 22초)

2019년 12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 뉴스타파와 독립감독과의 협업 1호 작품인 영화 <월성>이 개봉됐습니다. 황분희, 오순자 등 월성 핵발전소 옆에 살아가는 경주시 양남면 '월성 사람들'이 평생 겪어야 했던 고통과 희생을 다룬 다큐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개봉할 무렵, 월성 원전에 핵폐기물 저장소를 추가 증설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영화 <월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영화 <월성> 제작진은 '월성' 주인공들이 영화 개봉 이후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핵 폐기물 저장소인 '맥스터' 추가 건설 논의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월성을 다시 찾았습니다.

※ 영화를 보실 분은 아래주소로 들어가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tapa.org/article/vr02S>



## 길이 내게 말하기를

내일을 찾아가는 방랑의 시간, 길을 걷다

이경석 지 | 글풍경 | 2020년

1989년 인천 대건고에서 시작, 서울 성심여고, 목포 문태고등학교(교장), 문태중학교(교장)를 거쳐, 서울 충암고등학교(교장)에서 2020. 08.31일자로 퇴직하였다. 저서로는 『교장 1095일의 기록』(충주문화사, 2015), 『나는 이 아이들의 등대인가?』(소금나무, 2016), 『왜 달리는가?』(소금나무, 2016) 등이 있다. 퇴직 직후,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서울에서 목포까지 두 발로 걸었다.

『길이 내게 말하기를』은 저자가 참교육을 실천하는 등대지기가 되고자 했던 교장선생님의 길을 마치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서울에서 목포까지 두

발로 걸었던 기록이다. 길에서 스스로를 마주하며 나누는 대화, 굳이 묻지 않아도 들리는 길이 가르쳐 준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밝히는 저자의 모습이 담겨 있다.

오롯이 나의 미래를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나 본 적이 있는가!

참교육을 실천하는 등대지기가 되고자 했던 교장선생님의 퇴직은 교사로서의 사명을 마치는 일이자 새롭게 나를 찾는 시간이었다. 걷고 싶은 사색의 계절 가을이어서도 아니었고 마라토너의 기백도 아니었다. 오직 미래를 위한 방랑의 시간이 필요했다. 배낭 하나만 매고 서울을 떠나 국도 1번지에 닿을 때까지 걸었다.

길은 또 다른 길로 이어지며 17일간 405km 63만 걸음 속에 자연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게 했다. 길이 그랬던 것처럼 관계 속의 사람들은 나의 과거였고 현재였다. 길에서 나를 마주하며 나누는 대화, 굳이 묻지 않아도 들리는 길이 가르쳐 준 이야기, 그 속에는 미래의 내가 있었다.

책을 읽고 독후감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황사 대비 플랜테리어! 미세먼지, 공기정화식물로 준비하자

황사가 오면서 미세먼지의 수치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황사는 내몽골과 중국 북동부 지방에서 발원하여 북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지름 10 $\mu$ m 이하의 먼지를 뜻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지름이 2.5 $\mu$ m로 작은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초미세먼지의 지름은 머리카락 두께의 20분의 1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와 황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미세먼지는 아주 작은 크기의 오염 물질을 뜻하고 그중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지역에서 발생한 흙먼지를 황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영향을 미치는 황사 입자의 크기는 약 5~8 $\mu$ m로 미세먼지로 불립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 크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속으로 스며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식과 폐질환의 원인이 되고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더 작기 때문에 건강에 더욱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미세먼지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나기 위해 오늘은 푸루가 미세먼지 정화식물을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 산세베리아



산세베리아는 관리하기 쉬운 미세먼지 정화식물 중 하나인데요. 생장속도가 빠르고 21~25 $^{\circ}$ C에서 잘 자랍니다. 실내의 어두운 곳이나 거실, 발코니 등에 배치할 수 있으며 봄, 여름, 가을에는 토양 표면이 말랐을 때 물을 충분히 주면 되며, 겨울에는 흙이 대부분 말랐을 때 물을 주면 될 정도로 관리가 쉽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이나 공원에서 느끼는 상쾌함은 음이온 때문인데요. 산세베리아에는 이 음이온이 다른 식물들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산세베리아를 키우면 산림욕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 스투키



스투키는 일반적인 식물과 다르게 일몰과 함께 기공을 열어서 산소를 내뿜어냅니다. 그래서 불면증 해소에도 좋은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스투키는 한 달에 1번 정도만 흙에다가 물을 주면 되며, 장마철처럼 많이 습할 때는 한 달이 조금 지나고 물을 줘도 괜찮다고 합니다. 스투키는 집안 어디에서나 키울 수 있으며 다양한 크기가 있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키우기 좋습니다. 스투키 역시 음이온이 발생해 집안을 쾌적하게 해주며 전자파를 차단해준다고 합니다.

인체에 유해하여 더욱 조심해야 하는 미세먼지! 밖의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아도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도 많아 조심해야 하는데요. 공기청정기나 실내 공기를 정화시켜줄 수 있는 식물들을 키우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집안의 인테리어에도 좋겠죠!? 향긋한 풀내음과 함께 기분도 좋아질 수 있을거예요~! 집에서는 식물들로 공기를 정화시키고, 외출할 때는 미세먼지 농도를 잘 확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 정보는 공단에서 운영중인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인 '에어코리아'에서 확인 가능하답니다 :)

〈한국환경공단 블로그 발췌〉

# 청소년 환경기자단

## 청기백기 생활 속의 환경 톺아보기

청소년환경기자단 청기백기 학생기자들의 눈으로 바라본 일상의 환경문제에 대한 시선과 느낀 점입니다.

### 청소년환경기자단 청기백기

장이주 (목포고등학교 2학년)



1\_고하도 해안에 방치된 해양 쓰레기



2\_목포항에 투기된 쓰레기들



3\_영국에서 스타벅스의 유리병을 물고 있는 물범이 관찰됨

해양쓰레기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해양 쓰레기란 재질과 종류를 불문하고 고의 또는 부주의로 해안에 방치되거나 해양으로 유입·배출되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체를 의미합니다. 2019년, 영국 BBC는 유리병을 물고 있는 새끼 물범의 사진을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태평양에서는 대한민국 면적의 15배가 넘는 쓰레기 섬이 발견되는 등 해양 쓰레기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양 쓰레기 문제는 우리 목포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은 항구와 바다를 주요 관광요소로 내세우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해양 쓰레기로 인하여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행정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 청소년환경기자단 청기백기

유 은 (목포여자고등학교 2학년)



1\_제 때 버리지 않아 넘치고,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교실 쓰레기



2\_우리나라 약16배 규모의 쓰레기섬(태평양으로 전 세계 쓰레기들이 모이고, 우리나라의 쓰레기도 발견됨)



3\_화장품의 유해성분이 건강과 환경에도 영향을 미침(선크림 주성분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등)

- 분리수거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쓰레기를 막 버리는 사람들이 수도룩하다. 코로나 19 때문만이 아니라 배달음식 주문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잦다.
-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 증가 등으로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원형 순환해류와 바람의 영향으로 밀려와 만들어진 쓰레기섬이 있다. UN에 정식으로 인정받아 'The Trash Isle'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의 국가이다.
- 자외선 차단제에 유해 화학성분이 들어있다. 선크림을 몸에 바르고 사람들이 바다에서 해수욕을 즐길 때 물에 씻겨나가면서 유해 화학성분이 어류에 피해를 준다. 산호초는 백화 현상이 일어나 성장에 영향을 주고 죽게 하며, 산호와 조류의 공생 관계를 파괴한다. 화장품의 유해 화학성분이 사람 피부에 흡수되면, 생체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고 여성의 불임, 남성의 정자 수 감소, 성 기능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우리 지금 이래도 되는 걸까요?”

글 / 이수안 (목포여자고등학교 2학년)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 것,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것,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 이제 갓 입학하는 어린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단 한 시간도 멈추려 하지 않고 내딛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탄소 발자국들을 막아야 함은 알지만, 그 멈추는 발걸음이 자신이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괴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청기백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이 ‘내가 지금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큰 포부를 지녔지만 막상 저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가 만연하다는 핑계 속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한 해 소비한 일회용품이 제 방 하나를 가득 채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보이는 이유는 분명 제가 스스로 소비 습관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음료를 먹을 때 빨대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나무젓가락을 거절하고, 장바구니를 챙겨 보려는 변화가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할 수 있음은 이 좁쌀만큼의 노력을 점점 더 키워 결실을 맺기 위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청소년 기자단 1기의 활동이 끝나간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합니다. 우리의 활동이 과연 목포 시민 여러분의 마음 한 켠에 남았을지, 목포의 환경에 나비효과라도 불러올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었기에 아쉬움이 자리 잡는 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더 활발히 활동할 것을 기대하며 우리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청소년이 되고자 합니다.

## “다음부터”

글 / 김지영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다음부터라는 말은 참 많은 곳에 활용된다.

무언가를 후회할 때, 새로운 다짐을 할 때,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 어느 곳 하나 빼먹지 않고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인 이 단어는 어쩔 때는 무언가를 변명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했네- 다음부터 해야겠다.’ 같은 것들에서 말이다. 다음부터가 꼭 나쁜 단어가 될 수는 없으나, 어쩔 때는 도피처가 되기도 하고 외면의 방법으로 변색될 때가 있다. 예시로 들은 상황에서도 꽤 쓰이고 있다. 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무심코 분리수거를 안 했기에 그 쓰레기는 바다로 가고, 땅으로 가며, 때로는 공기 중으로 흘러들어 가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기도 한다. 절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그런 생각을 제외하셔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나는 우리 인간이 자연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받았다는 생각을 한다. 식량부터 시작해서 거주지 같은 것들을 말이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자연에게 보답하지 않고 쓰레기를 주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라도 이를 자각하고 현실로 실천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시작은, 페트병에 라벨 떼어내기부터!

2020년 절반을 청소년 환경기자단과 함께했던 것 같다. 눈 깜짝할 순간에 벌써 막바지에 다른 것 같아서 아쉬움이 너무 넘쳐나는 것 같다. 남들 한두 번 빠질 때 꼬박꼬박 악착같이 나오려고 많은 수를 뒀던 지난날이 떠오른다. 그 덕에 하루하루가 너무 색달랐고 새로웠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던 것 같다. 새로운 동료들도 보면서 마냥 어색함만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버틸 수 있었고 먼저 다가갈 수도 있어서 좋았다.

환경기자단 일을 하면서 스스로도 경각심이 생겨서 요즘 나날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수행하고 친구들에게 한 마디씩 조언과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에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끝까지 성실히 나오며 18살의 기억을 소중한 간직하고 싶다. 정말 이 기회를 준 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부귀영화를 점령하라!

목포 환경운동연합에는 다양한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부귀 영화 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4번째로 『다크 워터스』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세계 최대 화학 기업인 미국의 듀폰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라이팬 테팔로 유명한 듀폰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체에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PFOA)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것은 변호사 ‘롭 빌렛’이었습니다. 그는 이웃 농가의 소떼들이 폐수를 먹고 피를 흘리면서 죽는 것을 보았다. 농가에서는 기형아가 생기고, 독성물질공장의 노동자들도 기형아를 낳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뿐 아니라 프라이팬부터 콘택트렌즈, 아기 매트까지 일상 속에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또 각종 암과 갑상선 질환 등 중증의 질병들이 미국의 전역에 퍼져있다는 것도. 롭 빌렛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에 화학 기업 듀폰을, 피해를 당한 의뢰인 시민들을 대신하여 법정에 올립니다. 그리고 3,535건의 대규모 집단 소송을 승리로 이끌어냈지만 2018년에 끝난 20년의 법정 싸움은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절로 “어이그~”, “후우~”의 회원들의 한숨소리가 나왔습니다. 작은 울음소리도 있었습니다. 울컥함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것을 시민들이 나섰다는 것. 거대한 기업에 대해 무기력한 미국의 정부, 뻔뻔한 기업, 정신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고통까지 감수하면서 눈물겨운 싸움을 해낸 빌렛 가족, 일부분의 나약한 시민, 20년의 긴 싸움. 또한 “거짓이 아닌 것!” “꼭 밝혀져야 하는 것!”이라는 여기저기의 우리들 외침. 인권과 오염된 지구로 인해 빨리 뛰게 된 심장. 우리 모두는 이렇게 C8이 중독됨을 아는 듯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가 스텐 프라이팬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성과 가능성을 동일한 차원에서 연출해 주었던 영화 한 편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으니 글로 남겨 되새김질합니다. 글로벌 대기업의 꼼수에 맞서 3,535건의 대규모 집단 소송을 승리로 이끈 단 한 명의 변호사 롭 빌렛의 이야기는 급속도로 퍼져가는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에 빠진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과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영화에서 대한민국만이 듀폰의 독성 폐기물질 유출의 폭로와 독성 물질을 물리치는 운동을 보여줍니다.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당연히 코로나19도 자연법칙과 인류애의 순환구조가 잘 버무려진 생활안전을 만들어내 역사상 최고의 환경을 세울 것이리라 다짐합니다.

### “부귀영화”를 사수하자!

영화 동호회원들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다음세대입니다.

“다 잘 될거야.” “우리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라는 모든 생활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편리함에 길들여진 탓으로 무너진 지구와 인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사고, 버리고, 사고, 또 버리고는 그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은 숨쉬기조차 힘들지 모릅니다. 환경은 몇 년에 한 번씩 치르는 선거가 아니며, 변곡점을 타고 노는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활동가, 기업인,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시민이 일상에서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족이 말입니다. 멸종되는 동물들, 기아에서 허덕이는 아이들이 왜 생겨나는지 알아보고, 원래의 땅과 기후를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한 사람 한사람의 맑은 빛이 모여 되살려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말하고, 쓰고, 알리려고 합니다. 함께합시다!



## 2021년 제25차 정기총회 개최 공고

목포환경운동연합 제25차 정기총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사전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일시 | 2021년 1월 15일 ~ 1월 28일(목) 오후 6시 30분

방식 | 사전 서면결의 방식(페이스북 온라인방송)

안녕하세요 목포환경운동연합 회원 여러분!

세계적으로 기승인 코로나19로 인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고,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아 제25차 정기총회를 사전 서면결의 방식과 총회 당일 라이브 방송 참여로 진행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전 서면결의 방식이라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사무국에서 발송된 문자나 우편으로 발송된 총회자료집을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2020년 새롭게 목포환경운동연합의 벗이 되어 주신 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2020. 11. 11. ~ 2021. 1. 11.)

김근대, 김종수, 박문옥, 박현철, 전한솔, 정기문, 정유나, 정윤안, 조용만, 조이환, 지이화, 진택근, 최명희

## 청소년환경기자단 **청기백기** 2기 모집

- 지원자격 : 목포인근에 거주하는 만14세 이상 중·고등학생
- 모집인원 : 20명
- 모집기간 : [서류] 2021년 2월1일~ 28일  
※ 신청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방법 : 메일(simindream@daum.net)
- 합격발표 : 2021년 3월 2일
- 활동기간 : 2021년 3월 ~ 12월(10개월)
- 활동내용 : 지역 청소년활동 취재, 보도활동(환경, 교육, 사건 등)  
기자작성을 위한 정기회의(월 2회)  
기자학교 (기자교육 및 사진교육 실시)
- 특전 : 활동참여 시 봉사시간 적용, 취재와 보도활동 시 소정의 지원금 지급

### 물티슈의 두얼굴??

편리한 물티슈 자연적으로  
분해되는데 500년이 걸립니다



손현 회원



### 포마린

혼다V6 / 야마하 V6·V8 커맨드 링크 전문점



대표 **최은기**

T. 061-272-0118 / 010-9492-4707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21-11

### 내가 제일 예뻐지는 곳 못난이 미술관



**김판삼** 회원

전남 무안군 일로읍 상사바위길 125  
www.monnani.art

### 해바라기치과

원장 이해송



T. 010-2654-2875, 061-279-2886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172  
3층 해바라기치과(산정동)

### 목포환경운동연합 제25차 정기총회 개최 공고

일시 : 2021. 1. 15. ~ 28.(목)  
오후6시 30분

방식 : 사전 서면결의 방식  
(페이스북 온라인방송)



자연과 가까울수록  
병은 멀어지고,  
자연과 멀수록  
병은 가까워진다

- 괴테



**김종국** 회원